한국어 초급 말하기 교재의 간투사 연구

심민희*

〈차 례〉

1. 연구 목적 및 방법
2. 선행 연구 고찰
3. 한국어 초급 말하기 교재의 간투사 목록
4. 한국어 초급 말하기 교재의 간투사 분석 기준
   4.1. 의미
   4.2. 기능
   4.3. 기타
5. 한국어 초급 말하기 교재의 간투사 분석 내용
   5.1. 의미
   5.2. 기능
   5.3. 기타
6. 결론 및 제언

【국문초록】

최근 연구에서의 간투사에 대한 인식은 '군더더기 표현'에서 '의사소통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변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한국어 교육에서 간투사는 한국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고, 실제 교재에도

*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출현이 빈번하다.

이 연구에서는 다섯 권의 한국어 초급 말하기 교재 분석을 통해 해당 교재의 대화문에 출현하는 간투사의 목록과 빈도, 의미와 기능별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총 열네 가지의 간투사가 '네>그래요>아니요>아>여보세요>저>글쎄요>와>참>어=여기요=하하=음=자'의 빈도순으로 출현하였다. 간투사의 의미는 '긍정, 부정, 놀람, 걱정, 깨달음, 알림, 망설임'의 일곱 가지 기준을 세워서 분석하였는데 '걱정'을 제외하고 여섯 가지의 의미에 해당하는 간투사를 확인할 수 있었고 '긍정>부정>놀람>알림>깨달음>망설임'의 빈도순으로 출현하였다. 간투사의 기능은 '청자반응, 발화시작, 화제전환, 시간 끌기'의 네 가지 기준을 세워서 분석하였는데 '청자반응>발화시작=시간 끌기>화제전환'의 빈도순으로 출현하였다.

한편, 교재의 대화문에 간투사가 제시되어 있으나 별도의 설명이나 연습이 없고 교재에 따라, 또 동일한 교재 내에서도 문장 부호의 사용이 통일되지 않은 점을 기타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말하기에서의 간투사 사용이 더 이상 군더더기 표현이 아니라 화자의 전략적 사용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만큼 간투사 교수-학습에 대한 논의가 더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간투사를 대화문에 제시만 할 게 아니라 문장이나 상황 내에서의 대표적인 의미와 기능 등을 설명하고, 화용적 쓰임이나 억양별 차이 등에 대해서도 교재 분량을 할애하여 학습자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번 연구는 다섯 권의 초급 말하기 교재의 대화문에 한정되어 있어 관련 연구의 첫걸음에 지나지 않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중고급 말하기 교재를 분석하고, 나아가 전체 교재를 대상으로 정리한 후에 개선할 방향을 제시하여 학습자의 간투사 학습과 활용

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주제어: 한국어 교육, 간투사, 초급, 한국어 말하기, 교재 분석

1. 연구 목적 및 방법

한국어 교육 초기에는 주로 문법 번역식 교수법과 청화식 교수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중점을 두게 되면서 이 교수법 외에도 직접식 교수법이나 시청각 교수법, 과제 중심 교수법 등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하게 되었다. 특히 맥락(context) 고려를 대전제로 하여 정확성보다 적절성을 우선순위에 두는 의사소통적 교수법은 한국어 교육에서 상황 의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서법, 높임법, 호칭어, 지칭어 등의 교육에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실제 한국어 교육에서도 선호되고 있다.

이러한 교수법의 활용은 한국어 교재에도 반영되어 어색한 주고받기의 대화가 아니라 보다 현실적인 대화문이 제시되는 추세를 보여준다. 특히 초급부터 빈번히 제시되는 다양한 간투사[1]는 과거의 '군더더기 표현'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의사소통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해석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실제 언어생활을 반영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간투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할 수 있다.

교재 개발 목표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어 교재의 내용 구성은 학습 목표가 되는 어휘와 문법을 대화문에 제시하고 추가 설명 및 연습문제를 제공하는 기본 틀을 유지하고

1) '간투사' 용어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제2장에서 하도록 하겠다.

있다. 따라서 교재에서의 대화문은 박석준(2005)에서 지적한 것처럼 학습자들에게 중요한 학습 대상이 되며 실제로 사용할 한국어 지식의 핵심이자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대화문에 빈번히 제시되는 간투사의 목록 정리가 미비하고, 추가 설명 없이 단순히 제시만 되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도 현실이다.[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어에 빈번히 출현하는 간투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어 교재 중 말하기 교재, 그 중에서도 초급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해당 교재의 대화문에 출현하는 간투사의 목록과 빈도, 의미와 기능별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해야 할 점을 제안하고 추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하는 교재는 2011년 7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어 말하기 초급 교재 총 다섯 권으로, 전 영역이 통합되거나 두 영역 이상이 통합된 교재, 특수 목적으로 제작된 교재는 제외하였다.[3]

2. 선행 연구 고찰

그동안의 간투사 연구는 용어의 정의와 범주에 대한 연구, 말뭉

---

2) 이는 비단 한국어 교육에서만 제기되는 문제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Elisabeth Reber(2010)에서는 외국어로서의 영어 교재 대화문에 초급 단계부터 다양한 간투사가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 해당 간투사의 의미와 사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한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실제 사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3) 간투사는 구어의 특성이 두드러지므로 통합형 교재보다는 일단 말하기 교재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중고급을 분석하기 전에 초급 교재를 대상으로 하여 관련 연구를 시작하였다. 교재명은 편의상 '초-1, 초-2, 초-3, 초-4, 초-5'로 대신하였는데 '초-1'은 단독 말하기 교재이고, '초-2'부터 '초-5'는 총 12권의 시리즈 교재 중 초급에 해당하는 네 권이다.

치를 활용한 목록 연구, 실제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간투사 연구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체 연구 목록을 열거하는 대신 주요 연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는 것으로 연구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용어에 대한 연구는 감탄사, 간투사, 담화 표지로 보는 경우 등으로 다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는데 남기심・고영근(2004)과 신지연(2001)은 '감탄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남기심・고영근(2004)은 감탄사를 화자가 자신의 느낌이나 의지를 특별한 단어에 의지함이 없이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품사로 보고,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고 감정을 표출하는 감정 감탄사, 발화 현장에서 상대방을 의식하며 자기의 생각을 표시하는 의지 감탄사, 특별한 뜻 없이 나는 소리인 입버릇 및 더듬거림의 세 가지 유형으로 세분하였다. 신지연(2001)은 감탄사의 의미가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화용상의 단어'인 것을 강조한 것이 특징인데 감탄사가 최소한의 기본 의미를 가지되 구체적인 의미는 대부분 상황 의미에 의한 것이며 기본 의미는 담화 표지적 기능과 관계된다고 하였다.

오승신(1995)은 '간투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발화 상에서 다른 단어와 통사적인 구조를 이루지 않고 활용이나 파생을 하지 않으며 발화 당시 화자의 내면 상태나 정신 작용을 표출하거나 화자의 뜻을 전달하는 데에 관례적으로 쓰이는 단어'로 정의하고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의해 '비의사전달적 간투사'와 '의사전달적 간투사'로 세분하고 담화 상에서의 기능을 분석하였다.

한편, 전영옥(2002)은 간투사를 문법 범주, 담화 표지를 기능 범주로 보아 이 둘을 다른 차원에 속하는 개념으로 보는 견해를 따랐다. 즉, 연구 목적과 연구 대상에 따라 각각의 명칭을 부여해 사용해야 할 것을 주장하며 기존의 어휘 의미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는 '담화 표지'의 범주에서 논의하였다. 안주호(2009)

역시 ‘담화 표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화자와 청자, 화자와 화제, 화제와 화제의 결속으로 기능에 따른 담화 표지를 구분하였고 감탄사와 접속어, 부사어, 구절, 용언 담화 표지로 세분하여 교재별 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

다음으로 말뭉치를 활용한 대표적 연구로는 안의정(2007)과 전영옥(2009)이 있는데 안의정(2007)은 감탄사의 표제어 목록 보완을 목적으로 말뭉치의 빈도와 각각의 용례를 검토하였고 전영옥(2009)은 형태소 주석 말뭉치를 문어, 준구어, 구어로 나누어 감탄사의 실현 유형과 빈도수를 정리하고 의미와 기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교재를 분석한 최신 연구는 유지연(2010)과 신아영(2011)이 있는데 유지연(2010)은 ‘아’의 사전적 의미를 정리하고 ‘아’가 출현한 대화문을 분석하여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신아영(2011)은 ‘네, 그래, 아니’류에 한정하여 담화 기능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말하기 전략 교육 방안을 설계하였다. 한국어 교재를 분석한 경우에는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실제 교육을 어떻게 할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정리하면, 감탄사나 간투사, 담화 표지 등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공통적으로 문장 내 다른 요소와 통사적 독립성을 갖는다는 점과 화자가 청자나 상황을 고려하여 감정 표현과 전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실제 교육에서 감탄사, 간투사, 담화 표지 등의 용어 사용은 그다지 중요하다고 볼 수 없으나 연구 진행에서 통일성 있는 지시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오승신(1995)의 의견을 좇아 ‘간투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한국어 말하기 교재의 대화문에 제시되는 간투사가 ‘감탄’이라는 감정을 중심 의미로 두는 품사 차원의 ‘감탄사’만으로는 그 의미와 쓰임을 설명하기 어렵고, 담화 표지로 포괄하는 범위 내에서는 제한적이나마 활용하는 담화 표지까

지 포함시켜야 해서 어휘 차원에서 교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자의 감정을 나타내는 감탄사의 특징과 함께 담화 상황에서의 다양한 기능을 보이는 담화 표지로서의 특징을 포괄하되, 통사적으로 독립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여겨 '간투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의 간투사는 '화자의 다양한 감정을 나타내고 담화 상황별로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을 갖는 어휘 및 표현'으로 정의할 수 있다.

3. 한국어 초급 말하기 교재의 간투사 목록

총 다섯 권의 한국어 초급 말하기 교재에서 간투사로 선정한 기준은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에 감탄사로 품사가 분류되어 등재되어 있는 감탄사를 우선으로 하였고 사전에 감탄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활용을 하지 않는 특징으로 2장에서 정의내린 '간투사'의 조건에 맞는 경우에는 포함시켰다. 분석 대상 교재에서 연습문제 형식으로 하나의 대화 쌍으로만 제시된 경우와 괄호 넣기 유형의 문제에서 제시된 대화 쌍은 제외하였다. 그 결과, 출현 간투사 목록은 총 열네 가지로 단순 출현 빈도는 총 227회였다. 출현 목록과 빈도 및 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 1> 간투사 출현 목록, 빈도 및 비율

순위	간투사 목록	출현 빈도(횟수)	출현 비율(%)
1	네	134	59.0
2	그래요	36	15.9
3	아니요[4]	25	11.0

4) '아니오'도 1회 출현하였으나 동일 교재의 다른 내용에는 '아니요'로 되어

4	아	10	4.4
5	여보세요	6	2.6
6	저	5	2.2
7	글쎄요	2	0.9
8	와	2	0.9
9	참	2	0.9
10	어	1	0.4
10	여기요	1	0.4
10	하하	1	0.4
10	음	1	0.4
10	자	1	0.4
합계		227	100

교재별로 출현한 목록과 빈도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2> 교재별 출현 목록 및 빈도

		1	2	3	4	5	6	7	8	9	10	합계
초-1	간투사	네	아니요	그래요	글쎄요	여보세요	저	음	참	아	여기요	80
	빈도	53	5	8	2	2	4	1	1	3	1	
초-2	간투사	네	아니요	그래요	아	참						42
	빈도	22	9	6	4	1						
초-3	간투사	여보세요	네	그래요	아니요	아						38
	빈도	4	19	9	4	2						
초-4	간투사	네	아니요	그래요	아	저	하하	글쎄요	와			41
	빈도	23	5	8	1	1	1	1	1			
초-5	간투사	네	아니요	그래요	어	자	와					26
	빈도	17	1	5	1	1	1					

있는 것으로 보아, 단순 오타로 판단하여 '아니요'에 포함시켰다.

‘초-1’은 단독 말하기 교재이고, ‘초-2’부터 ‘초-5’는 시리즈 교재 중의 초급이므로 출현하는 간투사 목록의 종류와 빈도가 차이가 있다. 교재별 출현 간투사 목록의 빈도순은 ‘초-1’은 ‘네>그래요>아니요>저>아>글쎄요=여보세요>음=참=여기요’, ‘초-2’는 ‘네>아니요>그래요>아>참’, ‘초-3’은 ‘네>그래요>여보세요=아니요>아’, ‘초-4’는 ‘네>그래요>아니요>아=저=하하=글쎄요=와’, ‘초-5’는 ‘네>그래요>아니요>어=자=와’였다.

교재별로 처음 출현하는 간투사의 순서 및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3> 교재별 초출 순서 및 목록

초출 순서	초-1	초-2	초-3	초-4	초-5
1	네	네	여보세요	네	네
2	아니요	아니요	네	아니요	어
3	아	그래요	그래요	와	그래요
4	그래요	아	아니요	그래요	자
5	여기요	참	아	글쎄요	아니요
6	저			하하	와
7	음			아	
8	여보세요			저	
9	글쎄요				
10	참				

‘초-1’은 단독 말하기 교재이고, ‘초-2’부터 ‘초-5’는 시리즈 교재 중의 초급이므로 ‘초-2’부터 ‘초-5’까지의 교재를 순차적으로 보는 것이 처음 출현하는 간투사의 순서를 확인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각 항목별 사전 등재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선정 이유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표 4> 목록별 사전 등재 여부

	간투사 목록	사전 등재 여부	
		표준국어대사전	연세한국어사전
1	네	등재	등재[5]
2	그래요	미등재	등재
3	아니요	등재	등재[6]
4	아	등재	등재
5	여보세요	등재	등재
6	저	등재	등재
7	글쎄요	등재	등재[7]
8	와	등재	미등재
9	참	등재	등재
10	어	등재	등재
11	여기요	미등재	미등재
12	하하	등재	등재
13	음	등재	등재
14	자	등재	등재

사전에 감탄사로 등재된 것은 총 열네 개의 간투사 중 열한 개였고, 세 개의 간투사는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 두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간투사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그래요'의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그래'만 감탄사로 등재되어 있고 '그래요'는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 연세한국어사전에는 '그래'와 '그래요' 모두 등재되어 있는데 '그래'는 감탄사로 품사가 제시되어 있지만 '그래요'는 품사 분류 없이 쓰임에 대한 설명과 함께 등재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니'와 '아니요'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5) '예'도 등재되어 있다.

6) '아니오'로 등재되어 있다.

7) '글쎄'는 감탄사로, '글쎄요'는 품사 분류 없이 쓰임에 대한 설명과 함께 등재되어 있다.

‘그래’와 ‘그래요’의 관계도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그래요’를 간투사 목록에 포함시켰다. 초급 교재라는 특성 상 ‘그래’가 아니라 ‘그래요’가 출현하는 것이고, ‘그래’와 ‘그래요’의 의미와 기능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와’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우아’의 줄임말로 등재되어 있으나 연세한국어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았는데 간투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의 간투사 항목에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여기요’는 부르는 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명사나 부사로 등재된 표제어 ‘여기’에서 의미를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감탄사로 인정해 본 연구에서의 간투사 항목에 포함시켰다.[8)]

4. 한국어 초급 말하기 교재의 간투사 분석 기준

4장에서는 2장에서 정리한 ‘간투사’의 정의를 바탕으로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분석 교재에 출현한 간투사 각 목록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할 의미와 기능의 분석 기준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또한 추가 논의를 위해 기타 항목을 설정하여 개선방안으로 고려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다.

4.1. 의미

최현배(1971)에서는 감정적 느낌씨를 의미에 따라 기쁨, 성냄, 한숨, 슬픔, 걱정, 놀람, 두려움, 여김, 지움, 넉떨어짐, 뜻같음, 즐

8) 의미와 기능에서는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저기요’도 같은 맥락에서 부르는 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거움, 시원, 놀림, 코웃음, 우서움, 깔봄, 속틀림, 침, 가엾음, 기림, 반김, 물리침, 아양, 앓음의 스물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남기심・고영근(2004)에서는 기쁨, 성냄, 슬픔, 한숨, 놀라움, 넋떨어짐의 여섯 가지로 감정 감탄사를 나눈 바 있다. 본 연구에서의 의미는 주로 간투사를 발화하는 화자의 감정과 심리적 태도를 위주로 해석한 것이다. 다음은 분석 대상이 되는 간투사별로 선행 연구[9]에서의 의미를 살펴보고 사전적 의미를 추가로 하여 의미 항목을 정리한 것이다.

<1> 네

선행 연구	의미
오승신(1995)	긍정, 정보 인지
이원표(1995)	동의, 수긍
장수군(2008)	응답, 대답, 동의
하지혜(2010)	긍정, 찬성, 의심, 놀람, 주저
신아영(2011)	긍정, 수락, 순응

일반적으로 '네'는 상대방의 질문에 대한 긍정적 응답, 대답, 동의로 나타나며 물음표가 붙은 '네?'의 경우에는 의외의 정보에 대한 놀람, 의심 등을 나타내기도 한다. 따라서 '긍정'과 '놀람'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그래(요)

선행 연구	의미
김은정(1998)	긍정, 놀람, 의외성
김향화(2001)	긍정, 놀람
신아영(2011)	동의 긍정, 순응, 수락

9) 인용된 선행 연구에서 간투사 항목별로 정리된 의미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와 관련되어 언급된 내용을 재정리한 것이다.

‘그래(요)’는 기본적으로 긍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데에서 ‘네’와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물음표가 붙어 되묻는 경우에는 의외의 상황에 대한 놀람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네’와 마찬가지로 ‘긍정’과 ‘놀람’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아니(요)

선행 연구	의미
오승신(1995)	부정
이원표(1995)	부정, 놀람
구종남(1997)	부정, 놀람, 의아, 의심
김향화(2001)	부정, 놀람
정영애(2010)	부정
신아영(2011)	부정

‘아니(요)’는 기본적으로 부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 놀람과 의심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부정’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놀람’ 항목에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아

선행 연구	의미
강우원(2002)	실망, 짜증, 반가움, 주저
장수군(2008)	놀람, 당황, 초조, 다급, 기쁨, 슬픔, 뉘우침, 칭찬, 깨달음
유지연(2010)	놀람, 당황, 초조, 기쁨, 슬픔, 감동, 한탄, 걱정, 깨달음

‘아’는 다른 간투사에 비해 매우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앞뒤 문장의 내용에 따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이 가능하다. ‘놀람’과 ‘깨달음’의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5> 여보세요

주로 전화대화에서 볼 수 있는 '여보세요'는 하나의 고정된 부름말로써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화자가 '알림'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알림' 항목을 설정할 수 있다.

<6> 저

선행 연구	의미
장수군(2008)	기억 안 남

'저'는 보통 어색한 상태에서 주저하며 발화를 시작할 때 사용하므로 화자의 감정이나 심리적 태도를 중심으로 의미를 생각한다면 '망설임'의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

<7> 글쎄(요)

선행 연구	의미
이해영(1994)	불확실
이원표(1995)	망설임
오승신(1995)	재고, 찬동
정선혜(2005)	망설임
장수군(2008)	의혹, 회의
정영애(2010)	부정, 주저

'글쎄(요)'는 기본적으로 화자의 불확실한 심리적 상태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망설임'의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

<8> 와

'와'는 의외의 상황에서 기쁘고 감탄하여 놀라는 감정을 수반하

므로 이를 포괄하여 ‘놀람’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

<9> 참

선행 연구	의미
강우원(2000)	깨달음
김영철(2007)	상기, 깨달음
정영애(2010)	상기, 깨달음

‘참’은 잊고 있던 것이 다시 생각나거나 깨닫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잊고 있던 것을 다시 생각하는 것 자체를 깨닫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깨달음’[10]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

<10> 어

선행 연구	의미
강우원(2002)	실망, 짜증, 반가움, 주저

‘어’는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초조하거나, 다급한 상황에서 기쁨이나 슬픔의 감정을 포함하기도 한다. 이를 포괄하는 의미는 선행하는 감정인 ‘놀람’의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고 문장의 의미에 따라 ‘망설임’에도 포함시킬 수 있다.

<11> 여기요

‘여기요’는 ‘여보세요’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고정된 부름말로써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확정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지만 식당에서 주문하는 대화에서의 ‘여기요’는 화자가 ‘알림’을 의미한다

10) ‘놀람’과 ‘깨달음’의 구분은 쉽지 않은데 ‘놀람’은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처음 반응으로 나타나는 의미, ‘깨달음’은 원래 인지하고 있었으나 잊어버렸던 정보가 다시 생각나는 의미로 이해하였다.

고 볼 수 있으므로 ‘알림’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

<12> 하하

‘하하’는 놀라거나 한탄, 감탄할 때와 못마땅한 일을 당했을 때 근심하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다. 기분이 좋을 때와 불만족스러울 때 모두를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한 것에 대한 ‘놀람’의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으며 간접적으로 ‘긍정’을 표현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13> 음

선행 연구	의미
장수군(2008)	수긍, 불만, 걱정, 의문

‘음’은 불만과 걱정을 표시하기도 하지만 추가로 긍정과 수긍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앞뒤 문장의 내용에 따라 ‘걱정’이나 ‘긍정’, ‘망설임’의 의미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14> 자

선행 연구	의미
김향화(2001)	주의 집중
김영철(2008)	주의 집중

‘자’의 의미는 주의 집중을 원하는 화자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본인의 발화에 집중해 주기를 바라면서 ‘알림’의 의미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알림’의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리한 본 연구에서의 의미 항목은 ‘긍정’, ‘부정’, ‘놀람’, ‘걱정’, ‘깨달음’, ‘알림’, ‘망설임’의 일곱 가지이다.

4.2. 기능

간투사의 기능은 화자가 간투사를 담화 상에서 어떻게 이용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이해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의 기능 항목을 바탕으로 하여 사전에 기술된 기능적 측면의 설명을 덧붙여 기능 항목을 정리하고자 한다.

<표 5> 간투사의 기능에 대한 선행 연구

선행 연구	기능 항목
오승신(1995)	수신자 호출 보조, 발화의 시작 표시, 담화의 마감 의도 표시, 국면 전환의 표시, 청자 반응 표시, 발언권의 유지, 발화의 수정 표시, 청자의 주의 끌기
김향화(2001)	주의 집중, 초점 표시, 고집의 표시, 담화 참여 유도, 놀람의 표시, 망설임의 표시, 부정의 표시
전영옥(2002)	화제와 화제 결속(화제 시작, 진전, 전환, 연결, 마무리), 화자와 화제 결속(시간 벌기, 얼버무리며 넘어가기, 주장 약화하기, 주장 강조하기, 디딤말 기능, 수정하기, 부정적 태도 표현하기), 화자와 청자 결속(주의 집중, 대화 진행 조정하기, 발언권 가져오기, 정중하게 말하기, 호응하기)
정선혜(2005)	담화 진행상 나타나는 기능(화제 시작, 화제 연결 및 전환, 화제 호응, 발화 수정, 화제 마감), 화자 태도를 나타내는 기능(망설임, 발화 강조, 관심 유도, 체면 손상 완화, 발화 약화, 초점, 응답 회피, 공손 태도, 부정적 태도)
김영철(2007)	화제 시작, 주의 집중, 깨달음, 화자의 감정 표현, 화제 전환
김영철(2008)	화제 시작, 화제 전환, 주의 집중, 시간 벌기
안주호(2009)	화제와 화제 결속(화제 시작, 진전, 전환, 마무리), 화제와 화자 결속(시간 벌기, 얼버무리며 넘어가기, 주장 약화하기, 부정적인 태도 표현하기), 화제와 청자 결속(호응하기, 정중하게 말하기, 발언권 가져오기, 주의 집중)
하지혜(2010)	어휘 의미적(응답하기, 찬성하기, 수락하기, 수긍하기, 되묻기, 감정 표현하기), 담화 기능적(긍정적 맞장구치기, 수긍하기)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담화 표지의 담화 상에서의 기능으로 정리하였는데, 본 연구에서의 간투사 사용에 대한 이해를 '기능'으로 볼 때 동일한 맥락에서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화자의 발화에 초점을 맞춰 출현한 간투사 목록의 기능 항목을 정한다면 '청자 반응', '발화 시작', '화제 전환', '시간 끌기'의 네 가지가 가능할 것이다.

4.3. 기타

교재의 간투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재에 출현한 간투사의 의미와 기능 외에도 교재 내에서 간투사 항목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먼저 출현 간투사에 대한 설명이나 연습이 있는지와 어휘 색인에 포함시켰는지도 함께 살펴본다면 향후 교재 내에서 간투사 제시 방향을 잡는 데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내용은 별도의 교재 분석 항목을 설정하지 않고 교재별로 현황 파악을 하고자 한다.

덧붙여 각 간투사별로 어떤 문장 부호를 사용하였는지는 의미와 기능을 분석할 때 살펴볼 것인데 이상의 분석 기준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교재 분석 기준

교재	선행 문장	간투사 출현 문장	출현 간투사	의미							기능			
				긍정	부정	놀람	걱정	깨달음	알림	망설임	청자반응	발화시작	화제전환	시간끌기

교재는 '초-1, 초-2, 초-3, 초-4, 초-5'의 분류 기호를 사용하였고 간투사 출현 문장 앞에 어떤 선행 발화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

위하여 선행 문장도 기입하였다. 간투사 출현 문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간투사가 출현했는지 문장 부호와 함께 기입한 후에 총 7가지의 의미와 4가지의 기능에 포함되는 것을 하나씩 표기하여 합계를 계산하였다.

5. 한국어 초급 말하기 교재의 간투사 분석 내용

5.1. 의미

<1> 긍정

‘긍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간투사는 ‘네’, ‘그래요’, ‘하하’의 세 가지가 있었다.

간투사	출현 빈도(횟수)
네	132
그래요	6
하하	1
합계	139

먼저 가장 많이 출현한 간투사 ‘네’는 ‘긍정’의 의미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는데 (1)이나 (3)처럼 마침표가 있는 것과 (2)처럼 쉼표가 있는 것, (1)처럼 단답형 대답인 것과 (2)나 (3)처럼 그렇지 않은 것이 혼재해 있었다. 단순히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대답의 경우 마침표와 함께 짧게 단답형으로 끝났고, 긍정의 의미와 함께 사실 확인이나 부연 설명을 덧붙이는 경우에는 쉼표와 함께 제시되는 경우와 마침표와 함께 제시되는 경우가 있었다.

(1) 가: 이 사람이 부인이에요?
나: 네. (출처: 초-1)

(2) 가: 게이코 씨는 일본 사람입니까?
나: 네, 일본 사람입니다. (출처: 초-2)

(3) 가: 신분증을 주시면 제가 써 드릴게요.
나: 네. 알겠습니다. (출처: 초-4)

‘그래요’는 (4)처럼 단독으로 쓰인 경우는 2회만 출현하였고 나머지 4회는 (5)처럼 다른 간투사의 뒤를 이어 부연의 긍정으로 나타났다.

(4) 가: 슬리퍼도 필요하죠?
나: 그래요. (출처 초-1)

(5) 가: 복사실은 이 건물 지하 2층에 있어요.
나: 아, 그래요. (출처: 초-2)

‘하하’는 ‘놀람’과 ‘긍정’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는데 분석 대상인 (6)에서는 소극적이나마 긍정의 의미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6) 가: 준서 씨도 오늘 그 영화배우같이 멋있어요.
나: 하하. 고마워요. (출처: 초-4)

<2> 부정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간투사는 ‘아니요’ 한 가지만 출현하였다.

간투사	출현 빈도(횟수)
아니요	25
합계	25

‘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7)처럼 마침표가 있는 것과 (8)처럼 쉼표가 있는 것이 혼재해 있었는데 ‘네’와 다른 점은 ‘아니요’만으로 하는 단답형 대답은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부정의 의미를 표시하는 것인 만큼 부연 설명으로 부정의 태도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7) 가: 제임스 씨, 연극 연습 다 했어요?
나: 아니요. 아직 다 못했어요. (출처: 초-5)

(8) 가: 한국 사람입니까?
나: 아니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출처: 초-2)

<3> 놀람

‘놀람’의 의미를 나타내는 간투사는 ‘그래요’, ‘아’, ‘네’, ‘와’의 네 가지가 있었다.

간투사	출현 빈도(횟수)
그래요	30
아	6
네	2
와	2
합계	40

가장 많은 놀람을 나타낸 ‘그래요’는 모두 물음표를 동반하여 가벼운 반문으로 쓰인 경우였는데 (9)처럼 단독으로 ‘그래요?’만

쓰인 경우와 (10)처럼 뒤에 추가 질문이 더해지는 경우가 있었다.

(9) 가: 잇몸이 좀 좋지 않군요.
나: 그래요? (출처: 초-4)

(10) 가: 한라산과 해변이 특히 아름다워요.
나: 그래요?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출처: 초-1)

다음으로 '아'는 (11)처럼 느낌표와 같이 쓰인 경우와 (12)처럼 쉼표와 같이 쓰인 경우가 있었다. 쉼표가 같이 쓰인 경우에는 모두 바로 뒤에 '그래요'가 동반된 점이 특이하였다. 뒤에 동반된 '그래요'는 물음표와 쓰인 경우도 있고 마침표가 같이 쓰인 경우가 있었다. 또한 (13)처럼 '그렇습니까?'가 쓰인 경우도 한 번 있었다.

(11) 가: 어제 장동근이 나오는 영화를 봤어요.
나: 아! 저도 잡지에서 그 영화에 대한 기사를 봤어요.
(출처: 초-4)

(12) 가: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나: 아, 그래요? (출처: 초-1)

(13) 가: 한국어 수업을 듣고 싶습니다.
나: 아, 그렇습니까? 국적이 어디예요? (출처: 초-2)

<4> 걱정

'걱정'을 나타내는 간투사는 '음'을 예상하였으나 실제 분석 내용에서는 한 건도 출현하지 않았다.

<5> 깨달음

'깨달음'의 의미를 나타내는 간투사는 '아', '참'의 두 가지가 있었다.

간투사	출현 빈도(횟수)
아	4
참	2
합계	6

‘깨달음’을 나타내는 간투사 중 ‘아’는 모두 쉼표와 함께 나타났으며 (14)와 (15)에서 보듯이 뒤에 부연 질문이 추가되었다.

(14) 가: 저, 머리가 아픈데요.
나: 아, 두통약이 필요하세요? (출처: 초-1)

(15) 가: 크리스틴 씨, 저 여자분은 누구입니까?
나: 아, 저기 선글라스 쓴 사람요? (출처: 초-3)

‘참’은 갑자기 생각난 정보를 제시할 때 나타났는데 (16)처럼 모두 쉼표와 함께 쓰였다.

(16) 가: 저기 에어컨을 켜시면 됩니다.
나: 그래요? 참, 내일 여섯 시에 좀 깨워 주세요.
(출처: 초-1)

<6> 알림

‘알림’의 의미를 나타내는 간투사는 ‘여보세요’, ‘여기요’, ‘자’의 세 가지가 있었다.

간투사	출현 빈도(횟수)
여보세요	6
여기요	1
자	1
합계	8

가장 많이 나타난 ‘여보세요’는 모두 전화 대화문이었고, 전화 통화를 하고 싶은 상대방이 있는지, 상대방이 맞는지의 질문이 뒤에 이어졌다. (17)처럼 물음표와 함께 쓰인 경우와 (18)처럼 마침표와 함께 쓰인 경우가 있었다.

(17) 가: 여보세요?
나: 여보세요? 김수진 선생님 댁입니까? (출처: 초-3)

(18) 가: (선행발화 없음)
나: 여보세요. 미정이네 집이죠? (출처: 초-1)

‘여기요’는 음식 주문 시에 주문할 메뉴를 정하고 한 발화였는데 (19)처럼 느낌표가 같이 있어 강한 느낌을 준다.

(19) 가: 전 비빔밥을 시킬게요.
나: 여기요! 냉면하고 비빔밥 주세요. (출처: 초-1)

‘자’는 약속을 잡는 상황에 쓰였으며 (20)에서 보듯이 쉼표 뒤에 상대방의 의향을 묻는 발화가 이어졌다.

(20) 가: (선행발화 없음)
나: 자, 어떻게 할까요? (출처: 초-5)

‘알림’을 나타내는 간투사는 총 여덟 번 중 여섯 번이 선행 발화 없이 처음 발화된 것이 특징이었다. 나머지 한 번 역시 상대방의 ‘여보세요’에 이은 ‘여보세요’였고, ‘여기요!’는 메뉴를 정한 후에 주문을 하기 위해 발화된 것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된 선행 발화는 없다고 볼 수 있다.

<7> 망설임

‘망설임’을 나타내는 간투사는 ‘저’ ‘글쎄요’, ‘어’, ‘음’의 네 가지가 있었다.

간투사	출현 빈도(횟수)
저	5
글쎄요	2
어	1
음	1
합계	9

가장 많이 출현한 ‘저’는 다섯 번이 (21)처럼 선행발화 없이 질문이나 요청을 할 때였고, (22)처럼 한 번만이 다른 사람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었으며 모두 쉼표와 같이 쓰였다.

(21) 가: (선행발화 없음)
나: 저, 아저씨, 가방 좀 보여주세요. (출처: 초-1)

(22) 가: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나: 저, 머리가 아픈데요. (출처: 초-1)

‘글쎄요’는 모두 마침표와 같이 쓰였는데 한 번은 (23)처럼 화자가 아직 결정 내리지 못해 망설이는 것으로 단문으로 끝맺었고, 다른 한 번은 (24)처럼 화자의 생각을 나타내는 데에 쓰여 부연설명을 덧붙였다.

(23) 가: 이번 휴가에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나: 글쎄요. (출처: 초-1)

(24) 가: 마사미 씨, 아까 본 영화가 어땠어요?
나: 글쎄요. 자막이 없어서 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출처: 초-4)

‘어’는 쉼표와 함께 쓰였는데 (25)에서 보듯이 다른 사람의 제안을 완곡히 거절하는 내용이었다.

(25) 가: 민호 씨, 오늘 별일 없으면 같이 연극 보러 갈래요?
나: 어, 저는 오늘 미용실에 가려고 하는데요. (출처: 초-5)

‘음’ 역시 (26)처럼 쉼표와 같이 쓰였는데 추가 질문을 더하여 확실한 대답을 회피하는 내용이었다.

(26) 가: 이건 어떠세요? 손님들이 요즘 많이 찾으시는 거예요.
나: 음, 다른 색은 없어요? (출처: 초-1)

5.2. 기능

<1> 청자 반응

‘청자 반응’은 ‘네’, ‘아니요’, ‘그래요’, ‘아’, ‘와’, ‘하하’의 여섯 가지였다.

간투사	출현 빈도(횟수)
네	134
아니요	25
그래요	36
아	10
와	1
하하	1
합계	207

이를 의미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보면, ‘네’는 긍정과 놀람의 반응, ‘아니요’는 부정의 반응, ‘그래요’는 긍정과 놀람의 반응, ‘아’와 ‘와’ 역시 놀람의 반응, ‘하하’는 긍정의 반응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발화 시작

‘발화 시작’은 ‘여보세요’, ‘여기요’, ‘자’, ‘와’의 네 가지였다.

간투사	출현 빈도(횟수)
여보세요	6
여기요	1
자	1
와	1
합계	9

이를 의미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보면 ‘여보세요, 여기요, 자’는 모두 발화를 시작하는 표시로 ‘알림’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와’ 역시 뒤에 오는 발화를 하기에 앞서 놀라움과 감탄을 표시함으로써 발화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화제 전환

‘화제 전환’은 ‘참’만 나타났다.

간투사	출현 빈도(횟수)
참	2
합계	2

이를 의미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보면 다른 화제의 이야기를 하다

가 상기된 정보를 가지고 ‘깨달음’에 의해 화제 전환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시간 끌기
‘시간 끌기’는 ‘저’, ‘글쎄요’, ‘음’, ‘어’의 네 가지가 있었다.

간투사	출현 빈도(횟수)
저	5
글쎄요	2
어	1
음	1
합계	9

이를 의미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보면 모두 ‘망설임’에 해당하는데 단순히 망설이는 화자의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끌며 생각할 시간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3. 기타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이 된 말하기 교재에서의 간투사는 기본적으로 설명이 따로 되어 있지 않았다. ‘초-1’의 각과는 학습목표, 준비, 듣기, 어휘, 문법 설명 및 예문이 포함된 말하기, 대화문, 발음, 말하기 연습 세 개, 자기 확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와 ‘아니요’는 각각 영어 단어 ‘yes’와 ‘no’로 병기되어 있고 어휘 색인에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 외의 간투사는 별도의 설명이나 어휘 제시가 없었으며 어휘 색인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초-2’부터 ‘초-5’는 시리즈 교재로, 과마다 약간의 구성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말하기 전 활동을 시작으로 하여 대화문 두 개, 듣

기 연습 두 개, 말하기 연습 두 개가 섞여 구성되어 있는데 교재 내에 설명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어휘 색인도 없었다.

즉, 간투사는 교재 내의 대화문에 빈번히 노출되어 있으나 교재 구성 내용에서는 다루지 않았고 별도의 어휘로도 분류하지 않은 상태이다. 결국 이 부담은 고스란히 수업 시간으로 넘어가는데 교육 기관마다 무엇에 중점을 두어 교육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교재를 활용하는 교사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

다음으로 의미에서 언급한 문장 부호의 문제도 있다. 문장 부호는 문장을 구성함에 있어 글자와 함께 사용되는 여러 가지 부호를 말한다. 때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를 결정적으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황과 의미를 잘 파악해서 쓰는 것이 필요하다. 문장 부호는 문장의 의미를 더욱 정확하게 해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특히 운소가 큰 역할을 하는 간투사는 어떤 문장 부호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문장의 의미를 더욱 잘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분석 내용에서는 동일한 의미에도 다른 문장 부호가 혼재되어 사용된 경우가 많았다. 문장 부호도 한국어 교육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과거 군더더기 표현으로 인식되었던 간투사를 전략적 말하기의 주요 내용으로 파악하고, 한국어 초급 말하기 교재 다섯 권에서의 간투사 출현 목록과 빈도, 의미와 기능별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총 열네 가지의 간투사가 ‘네>그래요>아니요>아>여보세요>저>글쎄요>와>참>어=여기요=하하=음=자’의 빈도순으로 출현하였다. 교재별 출현목록과 출현빈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초-1’은

‘네>그래요>아니요>저>아>글쎄요=여보세요>음=참=여기요’, ‘초-2’는 ‘네>아니요>그래요>아>참’, ‘초-3’은 ‘네>그래요>여보세요=아니요>아’, ‘초-4’는 ‘네>그래요>아니요>아=저=하하=글쎄요=와’, ‘초-5’는 ‘네>그래요>아니요>어=자=와’의 빈도순을 보였다. 처음 출현하는 간투사 목록도 달랐는데 ‘초-1’은 ‘네, 아니요, 아, 그래요, 여기요, 저, 음, 여보세요, 글쎄요, 참’, ‘초-2’는 ‘네, 아니요, 그래요, 아, 참’, ‘초-3’은 ‘여보세요, 네, 그래요, 아니요, 아’, ‘초-4’는 ‘네, 아니요, 와, 그래요, 글쎄요, 하하, 아, 저’, ‘초-5’는 ‘네, 어, 그래요, 자, 아니요’ 순이었다.

간투사의 의미는 ‘긍정, 부정, 놀람, 걱정, 깨달음, 알림, 망설임’의 일곱 가지 기준을 세워서 분석하였다. ‘걱정’을 제외하고 여섯 가지의 의미에 해당하는 간투사를 확인할 수 있었고 ‘긍정>부정>놀람>알림>깨달음>망설임’의 빈도순으로 출현하였다. ‘긍정’에 해당하는 간투사는 ‘네, 그래요, 하하’, ‘부정’은 ‘아니요’, ‘놀람’은 간투사는 ‘그래요, 아, 네, 와’, ‘깨달음’은 ‘아, 참’, ‘알림’은 ‘여보세요, 여기요, 자’, ‘망설임’은 ‘저, 글쎄요, 어, 음’이 있었다.

간투사의 기능은 ‘청자반응, 발화시작, 화제전환, 시간 끌기’의 네 가지 기준을 세워서 분석하였다. ‘청자반응>발화시작=시간 끌기>화제전환’의 빈도순으로 출현하였다. ‘청자반응’에 해당하는 간투사는 ‘긍정’과 ‘놀람’의 ‘네’, ‘부정’의 ‘아니요’, ‘긍정’과 ‘놀람’의 ‘그래요’, ‘놀람’의 ‘아, 와’, ‘긍정’의 ‘하하’가 있었다. ‘발화시작’은 ‘알림’의 의미에 출현했던 ‘여보세요, 여기요, 자’와 ‘놀람’의 ‘와’가 포함되었다. ‘화제전환’은 ‘깨달음’의 의미에 출현했던 ‘참’이 있었고, ‘시간 끌기’에는 ‘망설임’의 의미를 나타내는 ‘저, 글쎄요, 어, 음’이 포함되었다.

한편, 교재의 대화문에 간투사가 제시되어 있으나 별도의 설명이나 연습이 없고 교재에 따라, 또 동일한 교재 내에서도 문장 부호의 사용이 통일되지 않은 점을 기타 내용으로 확인하였다.

말하기에서의 간투사 사용이 더 이상 군더더기 표현이 아니라 화자의 전략적 사용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만큼 간투사 교수-학습에 대한 논의가 더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말뭉치 관련 연구에서도 많이 지적한 것처럼 말뭉치를 바탕으로 교육용 간투사 목록을 정하고 수준에 맞게 적절한 빈도로 분배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로 전영옥(2009)[11]에서 활용한 것처럼 문어, 준구어, 구어 말뭉치를 같이 살펴보되 교재 대화문이라는 특성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간투사를 대화문에 제시만 할 게 아니라 문장이나 상황 내에서의 대표적인 의미와 기능 등을 설명하고, 좀 더 자세한 설명이 가능하다면 화용적 쓰임이나 억양별 차이 등에 대해서도 교재 분량을 할애하여 교사에게 100% 의지하지 않고도 학습자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외에도 간투사의 억양별 차이와 관련하여 문장 부호의 특성을 같이 설명하고 어휘 색인 등에서 하나의 고정된 어휘 및 표현으로 처리한다면 체계적인 간투사 교수-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연구는 다섯 권의 초급 말하기 교재의 대화문에 한정되었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중고급 말하기 교재도 분석하고, 나아가 전체 교재를 대상으로 정리한 후에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적용하여 학습자의 간투사 학습과 활용에 도움이 되게 할 것이다.[12]

---

11) 2007년 배포한 21세기 세종계획 최종 성과물에 있는 형태소 주석 말뭉치로 출현빈도를 분석하였는데 문어에서는 '아니>아>그래>뭐>자'의 순으로, 준구어에서는 '그래>아니>아>뭐>네'의 순으로, 구어에서는 '어>뭐>아>그>음>아니>그래'의 순으로 나타났다. 간투사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문어와 준구어, 구어에 순위 차이가 난다는 특징을 참고한다면 현재 한국어 말하기 교재의 특성이 어느 자료에 가까운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12) 심사 과정 중 익명의 심사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향후 연구에서는 분석 기준 적용의 타당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분석 교재의 다양화 외에도 다방면의 복합 분석, 특히 질적 분석을 강화하는 방안을 보완하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강우원,「담화 표지 ‘참’과 어찌말 ‘참’의 비교 연구」,『언어과학』7-1, 한국언어과학회, 2000, pp. 5-26.
강우원,「담화 표지 ‘아’와 ‘어’의 특성 비교 연구」,『우리말 연구』 12, 2002, pp. 241-257.
구종남,「간투사 ‘아니’의 의미 기능」,『한국언어문학』 39, 한국언어문학회, 1997, pp. 43-64.
김영철,「우리말 담화 표지 ‘참’ 고찰」,『국어문학』 43, 국어문학회, 2007, pp. 235-252.
김향화,「한국어 담화 표지의 기능」,『한국학논집』 28,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1, pp. 113-140.
남기심 · 고영근,『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2004.
박석준,「한국어 교재의 대화문에 대하여」,『문법 교육』 3, 한국문법교육학회, 2005, pp. 233-251.
신아영,「감탄사를 활용한 한국어 말하기 전략 교육 연구 - ‘네’, ‘그래’, ‘아니’류의 담화 기능을 중심으로 -」, 세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신지연,「감탄사의 의미 구조」,『한국어 의미학』 8, 한국어의미학회, 2001, pp. 241-259.
안의정,「구어 말뭉치를 이용한 감탄사의 목록 보완 방안」,『한국사전학』 10, 한국사전학회, 2007, pp. 185-196.
안주호,「한국어교육에서의 담화 표지 위계화 방안」,『한국어 교육』 20-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9, pp. 135-159.
오승신,「담화 상에서의 간투사의 기능」,『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2-1,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1997, pp. 53-86.
유지연,「한국어 초급 교재에 사용된 감탄사 ‘아’의 의미와 교육 방안」, 학술발표회 자료집, 한국중원언어학회, 2010, pp. 81-98.
이원표,「의지감탄사 “예, 글쎄, 아니”의 담화분석」,『사전편찬학 연구』 5-1,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원, 1995, pp. 164-218.
이해영,「담화 표지 ‘글쎄’의 담화기능과 사용의미」,『이화어문논집』

13,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어문학회, 1994, pp. 129-150.
장수군,「한중 감탄사의 대조 연구 - 일음절 한중 유사 감탄사를 중심으로 -」, 배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전영옥,「한국어 담화 표지의 특징 연구」,『화법연구』4, 한국화법학회, 2002, pp. 113-145.
전영옥,「구어와 문어에서의 감탄사 비교 연구」, 담화·인지언어학회, 제30회 정기학술대회, 2008, pp. 101-116.
전영옥,「말뭉치를 바탕으로 한 한국어 감탄사 연구」,『텍스트 언어학』27,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09, pp. 245-274.
정선혜,「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담화 표지 연구 - '글쎄, 뭐, 좀'을 중심으로 -」,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정영애,「국어 부정 극어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최현배,『우리말본』, 정음사, 1971.
하지혜,「일본인 학습자의 담화 표지 '네'의 의미 기능별 사용 양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한재영 외,『한국어 교수법』, 태학사, 2005.
Elisabeth Reber, "Interjections in the EFL classroom: teaching sounds and sequences", *ELT Journal* 65-4, 2010, pp. 365-375.

<교재>
이해영 외,『초급 한국어 말하기』, 한림출판사, 2006.
성균어학원 한국어교재 편찬위원회,『말하기 쉬운 한국어』1,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0.
성균어학원 한국어교재 편찬위원회,『말하기 쉬운 한국어』2,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0.
성균어학원 한국어교재 편찬위원회,『말하기 쉬운 한국어』3,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0.
성균어학원 한국어교재 편찬위원회,『말하기 쉬운 한국어』4,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0.

<사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연세한국어사전
(http://kordic.britannica.co.kr/sear_frame.asp?keyword=%20&keykind=all&sear_type=part)

A Study of Interjections in Elementary Speaking Korean Textbooks

Shim, Min-Hee

In recent studies, interjections were considered as an important item to improve Korean learner's communicative competence. In this study I analyzed interjections in five elementary speaking Korean textbooks and major analysis items were the meaning of the emergence interjections and the functions of that.

As a result of analysis, 14 interjections have appeared in elementary speaking Korean textbooks, and it presented in order of frequency are as follows:

네>그래요>아니요>아>여보세요>저>글쎄요>와>참>어=여기요=하하=음=자.

I have set analysis standards of the meaning of the emergence interjections and function of that in Korean elementary speaking textbooks. The meaning of interjections can divide as 7 parts: affirmation, negation, amazement, worry, enlightenment, notice, hesitation. As a result of analysis, 6 parts of meaning has appeared except the meaning of worry. It presented in order of frequency are as follows:

affirmation>negation>amazement>notice>enlightenment>hesitation.

The functions of interjections have 4 parts: reaction of listeners, starting of speaking, change of subject, making time. As a result of analysis, it presented in order of frequency are as follows:

reaction of listeners>starting of speaking=making time>change of subject.

In addition, there were no explanations about the meaning of the emergence interjections and the functions of that in the textbooks. The punctuation marks were lacking in unity.

To make a better speaking textbook, it is necessary to study based on corpus, and make a list of educational interjections apply to textbooks. And if possible,

it is better to have explanations about the meaning and the function of the emergence interjections. It could provide opportunities for learners to understand their own that would be needed. The research on the use of punctuation is also needed.

This study is limited to analyzing elementary speaking Korean textbooks, so it is necessary to expand to intermediate and advanced level, and also expanded to all kinds of educational textbooks.

Key words: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Korean interjection, elementary level, speaking Korean, textbook analysis

심민희
소속: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1489-20
전화번호: 010-7470-8711
전자우편: minishim08@hanyang.ac.kr

이 논문은 2012년 7월 10일 투고하여
2012년 8월 1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2년 8월 23일 게재 확정함.